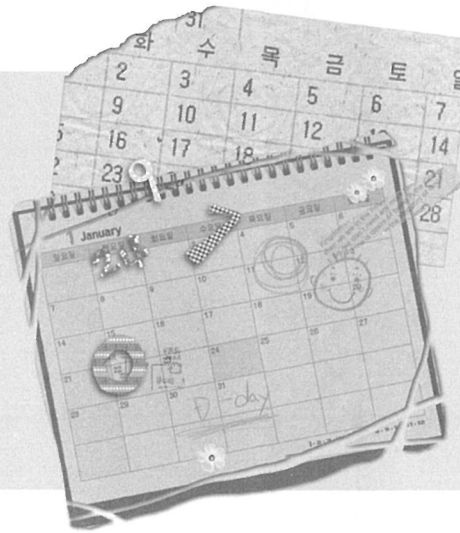


# 2월의 사양관리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제공  
(집필자 : 기광석, 최창용, 박성민)



전 세계가 이상 기온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끄꽂 얼어버리고 시카고의 체감 온도가 영하 60℃가 넘었다고 하니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참으로 힘든 겨울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나라도 3한4온(三寒四溫)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것은 오래전의 이야기인 것처럼 매년 매서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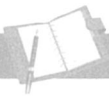
## 사양관리

**2014**년 1월 1일부터는 유대산정체계에 유단백률을 포함하는 등의 대폭적인 변화가 있어 많은 낙농가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다. 변경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유지방률의 기준점이 3.4%에서 3.5%로 높아지고 상한선이 4.1%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체세포 수 등급은 1등급유의 인센티브는 이전과 차이가 크지 않지만 2등급 이하에서는 비교적 큰 폭으로 인센티브가 감소하기 때문에 체세포수 등급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되었다. 따라서 체세포수가 높은 소들은 CMT검사(준임상형 유방염 확인) 등을 통해 별도 구분하여 관리해 주도록 한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잠재해 있던 준임상형 유방염이 축사내의 불결한 공기와 높은 습도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또한 찬 시멘트 바닥에 장시간 유방을 접촉하게 되어 임상형 유방염으로 발전하는 것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임상형 유방염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갈짚과 환기가 필요하다.

한편 겨울철에 기온이 내려가면 열손실이 증가하므로 급여사료 중 영양소 농도를 증가시

켜 주어야 하며, 특히 갓 태어난 송아지는 추위에 대한 저항력이 낮으므로 송아지 방을 따로 만들어 보온과 환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 보온 장치된 수조라도 영하의 기온에는 동파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점검하고, 흘린 물이 바닥에 얼어붙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조 주변이나 이동로에 염화칼슘 등을 뿌려 젖소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토록 한다. 또 착유한 다음 직풍에 의한 유두 동상을 예방하기 위해 겨울용 침지제(또는 일반 침지제와 글리세린을 1:1로 혼합한 후 물에 희석하여 사용할 수 있음)를 사용하고, 유두 침지 후 침지액이 마를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을 가진 후 밖으로 보내도록 한다.

혹한기에는 반추위 내 발효열이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즉, 차가운 물이나 언 사료를 섭취하면 반추위내 미생물이 손상되어 설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따뜻한 물을 급여하고, 사일리지와 같이 수분이 있는 사료는 얼지 않도록 관리하여 급여하며, 조사료의 길이는 평상시 보다 조금 길게 하여 반추위 활동을 증가시킨다. 또한 착유우는 기온이 0℃ 수준으로 떨어질 때는 유지요구량의 110%로 에너지 농도를 높이거나 사료급여량을 늘리고, -10℃ 수준으로 떨어질 때는 유지요구량 대비 126%로 소의 상태를 고려해 증량해 주도록 한다.



## 질병관리

**12** 월이나 1월보다는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지만 2월도 가축이 생활하기에는 힘든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질병 분야에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례로는, 먼저 운동장의 결빙에 따른 골절 등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미끄러져 생기는 고관절 탈구, 골절 등은 발생하게 되면 예후가 아주 나빠 대부분 도태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습 결빙구간은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뿌려 얼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톱밥 등의 깔짚을 깔아주어 조금이라도 미끄러움을 방지하도록 한다.

2월은 기온이 높았다 낮았다를 반복하므로 특히 급수시설의 동파가 우려된다. 착유우가 수분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우유생산에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사성 질환 등 질병에 노출될 우려가 높으므로 특히 급수시설을 면밀히 점검하여 동파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1월에 비해 2월에는 밤낮의 기온차가 심한 날이 더 많을 것이므로 특히 송아지의 경우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평상시 축사 내 차가운 공기가 바로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자주 환기를 시켜주도록 한다. 사람 뿐만 아니라 가축도 감기는 차가운 기온보다는 기온차가 심할 때 걸리기가 쉬우므로 축사의 보온 유지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㉞